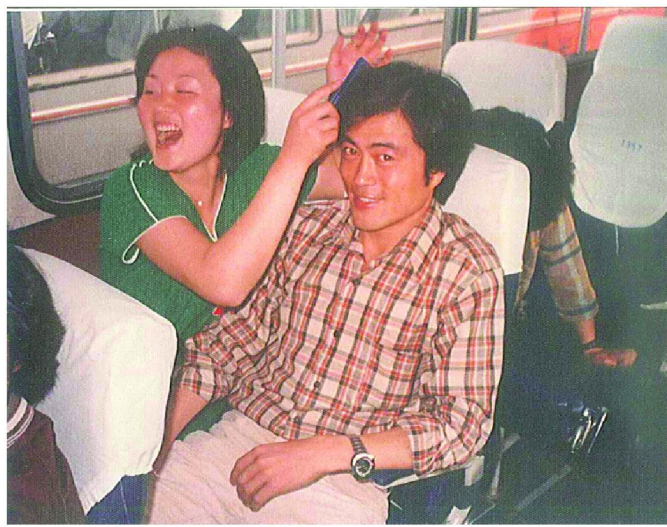


문재인 인생역정...노무현 친구서 5천만 친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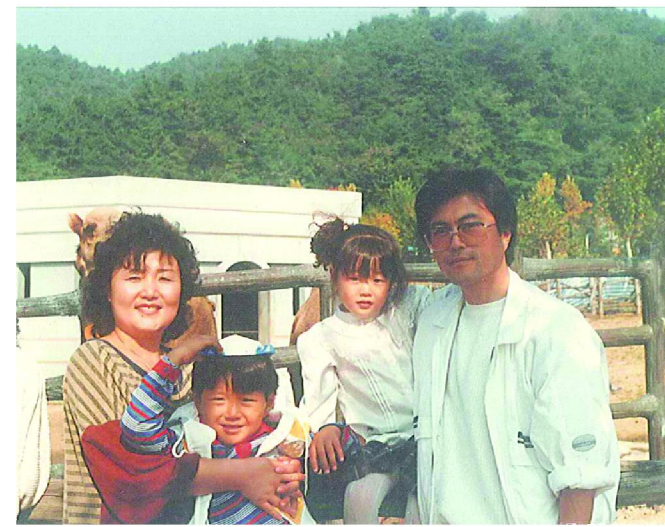
고교시절



대학시절



특전사 시절



가족과 함께



변호사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당선

■ 문재인이 걸어온 길

대학시절 민주화운동 두 번 구속...사시·연수원 '차석' 인권·노동변호사 개업...참여정부 비서실장·민정수석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의 인생은 그의 자서전 제목처럼 '운명' 과도 같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고 '정권 2인자'에 올랐지만, 정치와는 한사코 답을 쌓아 왔던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 오른 것은 역설에 가깝다.

학생운동 탓에 판사업이 좌절된 변호사 길로 들어선 것도, 홀로 계신 노모를 모시러 부산행을 택했다가 노 전 대통령을 만난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치에 입문하며 두 차례 대권에 도전한 것도 그에게 운명이었다.

노 전 대통령 밑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폐족 진노'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체 '자의 반 타의 반' 현실정치에 몸을 담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석패했다.

제1야당 대표를 거처며 분당사태로 무너지던 당을 재건해 작년 4·13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탄핵정국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경선에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기치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두 번째 본선에 뛰어들어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다.

◇거제서 태어나 부산서 자란 가난한 소년 = 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 경남 거제군 명진리 허름한 시골 농가에서 2남3녀 중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합경도 흥남이 고향인 부모가 1950년 12월 흥남철수 때 잠시 중공군을 피한다는 심정으로 별 준비없이 미군함

정에 몸을 실었던 게 실항의 한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중학교 때 부유한 친구들을 보며 세상의 불공평을 느꼈다고 한다. 이 시절부터 독서에 빠졌다. 고교시절 성적은 좋았지만 모범생은 아니었다. 고3 때 술을 마시고 담배도 배웠다. 싸움에 말려들어 의리를 지키려다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이름 탓에 '문제아' 별명이 붙어졌지만 네 번의 정학을 받은 '문제학생'이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번 구속 = 대학생 문재인은 '반유신' 운동권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인 민정학원·인혁당 사건당시인 1974년 문 대통령은 학내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구류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사형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를 이끌다 구속되고 학교에서 제적됐다. 그 해 석방과 동시에 강제 징집돼 특전사에서 군생활을 했다.

1978년 제대 직후 부전을 잃은 회한으로 해남 대흥사에서 고시공부에 매달려 1979년 사시 1차에 합격했다. 1980년 학교로 돌아온 문 당선인은 사시 2차를 치르고 경희대 법학사 대표로 '서울의 봄' 한가운데에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어 또다시 구속되고 만다.

그 해 5월 서울역 앞 시위에서 발생한 경찰 사망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받느라 미결수로 경찰서 유치장 생활을 하던 중 사시 합격소식을 들었다. 차석이었다.

◇인권변호사 길 = 판사를 지망했지만 시위전력으로

좌절했다. 대형로펌 스카우트를 거절하고 부산행을 택했다. 1982년 노 전 대통령과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다.

의기부합한 두 사람에게 각종 인권·사국·노동 사건이 풀렸다. 재야운동에 발을 들인 문 대통령은 부산·경남 민변을 창립했다.

1988년 노 전 대통령은 13대 총선에 출마해 정치권에 들어섰지만, 문 대통령은 노동문제 변호사 길을 이어 갔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경선 때 문 대통령은 노 후보의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민정수석 두 차례,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쳤다.

◇재수 끝에 청와대 입성 =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 속에서 야권 대통합 과정에 뛰어들던 문 대통령은 2012년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됐고, 그 두 달 뒤 대선후보로 나섰다.

안철수 후보와의 우여곡절 끝 단일화로 48.02%라는 역대 야권 대선후보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박근혜 후보에게 무릎 꿇었다.

이후 대선을 준비하던 작년 하반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해임판결이 이어지면서 촛불민심과 함께 했던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최정점자로 부상했다.

사상 첫 조기 대선을 가져다준 촛불민심을 토대로 한 손에는 적폐청산, 다른 한 손에는 통합의 깃발을 부여 잡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사자후를 모했고, 국민은 마침내 그의 손을 잡았다. 2008년 2월 25일 정권 2인자로 쓸쓸히 청와대 문을 나선 지 9년 2개월여 만에 1인자가 되어 그 문을 당당히 열어젖혔다.

/연합뉴스



18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 당선

■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실향민 부모 슬하 2남3녀 중 장남 배우자 김정숙씨와 사이에 1남1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다.

평소 '집안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유명했던 데다가 가족이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복 실향민 부모 슬하의 2남 3녀 중 둘째이자 장남이다.

합경도 흥남이 고향인 문 당선인의 아버지 고 문용형 씨와 어머니 강현옥씨(90)는 1950년 '흥남철수' 때 미군 선박을 타고 거제도도 피난해 남한에 정착했다.

지역에서 수재로 불린 문씨는 합경도지역의 명문인 함흥농고를 졸업한 뒤 흥남시청에서 농업계장을 지냈다. 하지만 피난지인 거제도에서는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의 상황이 되지 못했고, 사업에도 실패했다.

대신 강씨가 계란행상 등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

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성남 유세에서 "저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양말행상, 담갈 보따리장사를 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면서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극복하고 변호사가 됐지만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가정사를 회고했다.

문씨는 1978년 삼정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강씨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남동생인 재익씨(58)는 상선 선장이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재직시절 재익씨가 STX에서 승선하던 시절의 유명한 일화도 있다.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임명 뒤 회사 측에서 재익씨를 해상직이 아닌 육상직 고위직으로 발령 냈는데, 문 대통령이 동생에게 연락해 "STX에 도움 줄 일은 손뚱만 킁도 읊을 테니 당장 바다로 돌아가라"라고 했다는 이

야기다. 결국, 그 길로 재익씨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누나인 재월씨(68), 여동생 재성씨(62)와 재실씨(55)는 평범한 주부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배우자 김정숙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장남인 준용씨(35)는 건국대를 졸업한 뒤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디어아트 스트로 활동 중이다. 결혼해 아들을 한 명 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준용씨가 유학 전 일한 곳인 한국고용정보원과 관련, 상대후보 측에서 특혜제용 의혹을 제기하고 준용씨의 학교 동기 등이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실으면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딸 다혜씨(34)는 결혼한 뒤 출산을 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 재취업, 전시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자녀는 이번 대선기간 공식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다혜씨는 지난 8일 마지막 유세가 펼쳐진 광화문 광장에서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손자인 서지안군과 함께 깜짝 등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9일에도 문 후보의 자택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연합뉴스